

사상(四象)체질과 조의간호에 관한 간단한 논술

오 금 자*

간호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사람의 체질 및 차이성(差異性)으로 "변상시호(辨象施護)"하는것은 조의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간호적 특색인것이다. 《사상금匱비방》(四象金匱秘方)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천만갈래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약으로서 같은 병을 치료할 때 혹은 치료가 되고 혹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상(四象)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장경악(張景岳)은 "사람과 증상을 식별할 때 사람은 본(本)이고 증상은 표(標)이며 증상은 사람을 따라서 나타나기에 치료되고 아니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증상을 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질병은 본래 가지고 있는 체질과 병을 일으키는 인소의 종합적인 반응이기에 질병의 발생진단, 치료, 간호를 인식함에 있어서 모두 환자의 구체적 체질을 떠나지 못하며 체질을 기본으로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다. 조의(朝醫)간호는 질병의 인소에 대하여 역시 정체관(整體觀)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우리가 임상 간호중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비록 같은 질병일지라도 환자의 체질 차이로 말미암아 발병정황도 부동하며 병이 따라나서는 경향도 부동한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비록 부동한 질병일지라도 환자의 체질방면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때 때때로 같거나 혹은 비슷한 임상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레하면 양인(陽人)의 개성은 외향(外向)성격이고 음인(陰人)의 개성은 내향(內向)성격이며 음인의 심리응부능력은 비교적 온당하고 양인들은 일단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심리적 모순의 충돌이 발생되게 되며 고려가 많고 조금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심리적부담이 아주 중하고 급박한 마음이 생기면서 쉽게 노하고 어떠한 자극성적인 반응에 대하여서는 강렬한 표현등이 생기는데 이는 인체가 성장발육하는 과정에서 선품장리(先稟臟理)가 부동하고 정서의 표현이 다름으로서 생리적 대사가 형성되는데 기능활동에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어떤 질병의 인소 혹은 어떤 질병의 이감성(易感性)과 병이 발생된 후의 어떤 병변의 경향성(傾向性)을 결정하며 병변이 전환되는 내재적 기인(基因)으로 되고 있는 데 이는 질병의 발생, 전변은 체질 인소가 주도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기 때문에 "변상시호"(辨象施護)는 조의임상간호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로 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임상간호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 연변민족의약 연구소

것이다.

사상인의 선품장리가 부동하며 그의 개성 병리기제(病理機制)가 부동하며 사상인의 음식 약물의 선택성도 부동하기 때문에 조의 간호는 우선 변상(辨象)하여야 하며 매개 병인의 부동한 특점에 대하여서는 적합한 간호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심리간호와 음식약물간호를 가감하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회복에 아주 유리할 것이다. 그럼 아래에 사상체질과조의 간호에 대하여 약간한 체득을 논하여 보려한다.

변상간호는 간호에 있어서 관건으로 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실에 들어온 후 우리 간호들은 우선 조의(朝醫)방법으로(보고 냄새맡고 물어보며 짚어보는 방법)(望, 聞, 問, 切) 환자의 체형용모와 상징성적인 특징, 성정, 배설물, 다발병, 음식기호, 즐겨하는 계절, 약물반응, 맥상등을 요해하고 관찰한 다음, 태, 소, 음, 양, 사상인을 확정하고 상응되는 간호적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조의와 중의의 부동한 점은 곧바로 변상이다. 조의는 변상을 모든 임상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변상간호도 역시 모든 간호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변상간호도 역시 모든 간호에 있어서의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이 정확하면 그 효과도 따라서 뚜렷한 것이다. 사상인의 선품장리가 부동하기 때문에 같은 상에서 부동한 병일지라도 발병기제는 기본상 같으며 부동한 상일 때 같은 병일지라도 그들의 발병기제는 다르다는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간호면에서도 다른 상에서 같은 병일지라도 다르게 간호하고 같은 상일 때 다른 병이라도 같게 간호하는 방법으로서 입원간호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원간호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도적 내용은 :

1) 환자의 개성특점, 정서특점과 심리상태를 요해하고 관찰하면서 입원지도를 잘 하여야 한다.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그가 익숙한 가정환경을

떠나게 되고 그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며 그의 생활습성을 놓게 되고 생소한 병원환경에 들어서게 되면서 낮은 사람을 보게 되고 또한 질병의 시달림과 나아가서는 사망의 변두리에 봉착하게 되므로 각종 부동한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환자시간에 상(象)이 다르므로 입원후에 심리적 반응도 또한 각이한 것이다. 레하면 활동이 많고 성격이 외향성적인 소양인, 태양인은 자고로 말이 많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주위를 잘 관찰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병원의 생소한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급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태양인은 폭노심애(暴怒深哀)하므로 이를 경계하여야하고 소양인은 폭애심노(暴哀深怒)하므로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때문에 간호원들은 반드시 환자들에게 체질과 병정관계를 해석해 줌으로서 환자들의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해제하도록 인도를 가하면서 환자들에게 질병을 전승할 수 있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급박한 마음을 극복시킬 수 있으며 병정이 가중하여 질 수 있는 인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용하고 성격이 내향적인 태음인, 소음인은 성격이 온순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입원한 환경에 잘 적응되지 않으며 병에 대하여 비관실망을 갖고 있고 흑간 탄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음인의 정서가 더욱 불온정하며 폭로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두 음인들의 입원지도에 대하여서는 환자들에게 조의 간호지식을 장악하게 하며 생활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줄 알게 하며 내심하게 반복적인 방법으로서 우울하거나 비관하고 두려워하는 등 불량한 정서를 제거시키도록 해석하고 일깨워 주어 우울한 심경속에서 빠져 나오게 하며 질병을 전승할 수 있는 신심을 증강시키고 금후 아름다운 희망과 추구가 있다는 것을 수립시켜야 한다.

2) 상에 따라 (체질)음식과 생활간호를 잘 하여

야 한다.

음식은 인체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물질적 기초이며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회복시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음식과 생활간호상에서 주의에서는 특별히 체질의 차이, 병에 따라 다스리는 면에서 주의하여 강조하고 있다. 례하면 소양인의 체질은 신소약비대강(腎小弱脾大強)하며 신은 한장이고(腎爲寒臟) 비는 열장(脾爲熱臟)이기에 한소열대(寒小熱大)하므로 평소에 열이 성하면서 쉽게 열온지사(熱溫之邪)를 받게 되며 봄과 여름 두계절에 병이 많이 발생하고 소양인은 쉽게 열증에 걸리기 때문에 소채, 과일, 돼지고기, 밀, 녹두등 청열자음(淸熱滋陰)시키는 생랭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며 약을 달여 먹을 때에도 청열작용에 도달시 키기에 너무 덥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고기, 양고기, 개고기, 닭고기, 술등 온성(溫性)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소양인의 입원 침실은 될수록 선선한 곳에 안배되어야 한다. 소음인의 체질은 신대강비소약(腎大強脾小弱)하며 신은 한장이고 비는 열장이기에 한대열소(寒大熱小)하므로 평소에 한이 성하면서 쉽게 한량지사(寒涼之邪)를 받게 되며 겨울과 가을 두 계절에 병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인은 쉽게 소화불량, 설사등에 잘 걸리기 때문에 돼지고기, 과일, 냉수등 차거운 음식물을 적게 먹어야 하며 약을 달여서 더울때 마셔야 하며 적응되는 음식들로는 닭고기, 개고기, 소고기, 꿀등 더운 것이며 소음인의 입원 침실은 될수록 따스한 곳에 안배되어야 한다. 또 예를 들어 소양인이 걸린 해수(咳嗽)병은 오랜기침을 하며 가래에서 피가 섞이

거나 오심번열(五心煩熱)등 “음허”(陰虛)증상이 나타나는데 마땅히 백합(百合), 연자(蓮子), 번가(蕃茄), 배추(白菜)등生津양음(生津養陰)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며 파(蔥), 생강(生姜), 마늘(蒜), 호추(胡椒)등 맵고 발산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음인은 위약비쇠(胃弱脾衰)하고 운납무권(運納無權)하기에 기름에 튀운 고기와 물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며 반드시 잘 익힌 오곡죽(五穀粥)같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고 무우(蘿卜)같은 이기건비(理氣健脾)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다음 음식간호를 지도하는 면에서 충족한 열량,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을 보충시켜야 하며 섭취하는 양을 마땅한 식욕에 적응시켜야하지 즐겨하는 음식이라도 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고기, 물고기 같은 비리고 기름져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더욱 먹지말게 하여야 한다.

총적으로 사상체질학과 조의간호를 통하여 저는 부동한 체질환자의 간호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조의 이론에 좇아서 이론적 지도를 하여야 하고 정확하게 사상인을 판단한 기초상에서 사상인의 심리특점과 음식특점을 틀어쥐고 간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한 방면으로는 조의이론으로서 환자를 지도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환자를 도와 조의 간호기술을 장악하게끔 이끌어주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게 하면서 생활내용이 더욱 충실하여야만이 질병과 싸우는 신심과 용기가 북돋아 오르면서 비교적 좋은 간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였다.